

IgA신증에서 WHO분류와 Oxford분류의 비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²

강석휘¹ · 최선령¹ · 이자영¹ · 정병하¹ · 박철휘¹ · 양철우¹ · 김용수¹ · 최영진² · 최범순¹

Comparison of WHO and Oxford Classification in IgA Nephropathy

Seok-Hui Kang¹, Sun Ryoung Choi¹, Ja Young Lee¹, Byung Ha Jeoung¹
Chul Whee Park¹, Chul Woo Yang¹, Yong Soo Kim¹, Yeong Jin Choi², Bum Soon Choi¹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 and Hospital Pathology²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배경 및 목적: IgA신증은 가장 흔한 면역 복합체 매개성 사구체 신염으로 혈청 크레아티닌, 고혈압, 하루 1 g 이상의 단백뇨가 중요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병리학적 소견 또한 예후의 예측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부터 많이 사용해오던 WHO분류법과 최근 발표된 Oxford분류법을 비교하여 임상적 예후의 예측인자를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2003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신조직 검사를 통하여 IgA신증으로 확진된 1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WHO분류, Oxford분류를 시행하여 신조직검사 당시의 소견과 이후 경과관찰을 시행한 후의 소견을 비교하였다.

결과: WHO분류법에 따라서 stage I에서 V까지 각각 3명, 31명, 64명, 29명, 4명이 관찰되었으며, Oxford분류법에 따라서 M0, M1이 각각 12명, 119명, S0, S1이 각각 56명, 75명, E0, E1이 각각 117명, 14명, T0, T1, T2가 각각 86명, 36명, 9명이 관찰되었다. WHO분류법에서 각 stage별 초기, 후기 GFR의 변화는 IV에서만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으며 M stage의 경우 각각의 군에서는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으나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S stage의 경우 S1 군에서 의미있는 GFR의 감소를 보였으며, E stage의 경우 E0군에서 GFR의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 T stage의 경우 T2군에서 의미있는 GFR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 WHO분류에서 IV stage와 Oxford분류에서 S, T stage만이 추후 신기능 감소를 예측할 수 있었다.

Key Words: IgA신증, WHO분류, Oxford분류

IgA nephropathy, WHO classification, Oxford classification